

# 부산지회 정병춘 지회장 국회미래신문에 소개

- 양봉산업에 대한 애정과 신념 묻어나
- 꿀벌의 부가가치는 146조, 국가발전에 주요사업

부산지회 정병춘 지회장이 국회미래신문에 소개되어 양봉산업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병춘 지회장은 지난 1월 29일(금) 국회미래신문에 “양봉산업의 전반적인 위상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람과 사람들 코너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거북이 걸음으로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 말하지만 그의 행보는 거북의 걸음 이상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 속에는 정병춘 지회장의 양봉산업에 대한 애정과 신념이 묻어났다.

정병춘 지회장은 “국내 양봉농가가 4만여에 이르나 주요 축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벌의 공익적 가치는 물론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양봉산업은 부가가치는 146조에 달한다” 며 양봉산업이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주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임의 자조금에 대한 생각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처음에는 농가들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도 했지만 흔쾌히 참여하는 농가들에 고맙게 생각한다. 자조금은 양봉산업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고,

국내 양봉산물이 소비자에게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홍보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것이다”며 자조금 거출이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한편 정병춘 지회장은 정부가 벌꿀생산량 증가와 경제적 가치를 위해 밀원수 식재에 힘써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임야면적 640만ha 중 아까시나무는 5%에 지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는 150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밀원수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미래신문 제 58호 2010년 1월 29일자 16페이지를 확인하길 바란다. **양봉**



▲ 부산지회 정병춘 지회장

# 광주 전남지회 영농기술교육 실시

## - 친환경농업교육관 250여명 가득 메워

한국양봉협회 광주 전남지회는 지난 2월 5일(금) 친환경농업교육관 101호 강의실에서 영농기술교육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날 교육에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봉농가 250여명이 참석하여 강의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농가들의 양봉지식을 배우기 위한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자세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본 교육에는 친환경 벌꿀생산을 위한 병충해 관리(농진청 최용수 박사), 프로폴리스의 생산기술 및 이용(농진청 우순옥 박사), 봄철의 양봉 사양관리 기술(경북대 차용호 교수) 등 양봉의 모든

과정이 소개됐다.

광주·전남 강순중 지회장은 “먼 길 마다 앉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좋은 강의 들려주신 농진청 최용수, 우순옥 박사 및 경북대 차용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육이 농가들에게 봄철 양봉관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비책이 되었음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양봉교육이 활성화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 양봉도 다양한 연구와 교육으로 한층 성숙된 양봉산업이 육성되길 기원한다”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양봉**



▲ 강의실을 가득 메운 광주전남 양봉인들



▲ 광주전남 강순중 지회장 인사말